

## 논문

## 인천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추진 특성\*

## A Study on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Heemangji to the Deobuleo Community-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Incheon

조상운\*\* · 김영은\*\*\*

Cho, Sang-Woon · Kim, Young-Eun

##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the Heemangji project which has been started since 2018 in Incheon. Deobuleo community project is an urban regeneration supporting project of Incheon and Heemangji project is a preliminary project to reinforce residents' capabilities before the Deobuleo community project or othe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ed. Firstly, Heemangji project became accepted as an effective means for having regular community gathering and reinforcing residents' capabilities through operating a town center and posting an aid group to each sites. Secondly, through the community research and analysis program, residents' were able to share the community issues and visions and by carrying out small-size works directly, residents' could have opportunities to develop to the Deobuleo community project. Thirdly, There were some obstacles to proceed the Heemangji project such as progressing in a short-period without full understanding both public institutions and residents, setting an stiff standard of execution of the budget and leading by aid groups not residents. Fourthly, it turned out that H/W plans were difficult to implement in spite of both S/W and H/W plans were set in the every sites. Therefore the operational instructions should be flexible enough to match each sites' condition and various residents' requirements. Lastly, Heemangji project is not sufficient to prepare for developing to full-size urban regeneration project because some sites were mainly led by support groups. In order to be sustainable, the community activists or leaderships should be raised and it should be specified in the subscription guid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gure out ways of operating the Heemangji project effectively and to seek for solutions to connect to the full-scaled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is study would be meaningful to understand that Heemangji project is an important step for the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but it still has some vulnerable points.

주제/어: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소규모 재생사업, 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

Keywords: Community, Urban Regeneration, Small-Scaled Urban Regeneration Project

\* 이 논문은 인천연구원 정책연구과제인 '인천 소규모재생사업 추진 및 연계활용 방안' 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주저자: chosw@ii.re.kr)

\*\*\* 인천연구원 전임연구위원(교신저자: yekim@ii.re.kr)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자체 주도로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 및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2018년 4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체계적 준비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 지원사업’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는 주민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기반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마련된 것이다.

도시재생 뉴딜 지원사업의 하나인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점 단위 사업에 직접 참여토록 하여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sup>1)</sup>. 지금까지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주민에게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시재생대학과 같은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된 사업을 주민이 직접 추진해 봄으로써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경험을 축적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인천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모선정 경험이 있는 일부 군·구를 제외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거나,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큰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조상운, 2018). 이에 인천시는 2018년부터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도시재생대학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중에 있으며, 소규모 재생사업 발표 이전인 2018년 2월부터 ‘더불어마을 희망지 사업(이하 ‘희망지사업’)'을 자체 예산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희망지사업은 국토부의 소규모 재생사업과 유사한 목적 가지고 있으며, 인천형 도시재생사업인 ‘더불어마을 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준비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희망지사업이 처음으로 시도되어 주민조직의 구성 및 지원, 각종 지원사항 및 지원규모, 지원단체의 역할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주도의 사업을 전개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사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 부족으로 지원단체나 행정 주도로 추진되어 주민참여는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더불어마을 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준비단계라 할 수 있는 희망지사업의 추진실태를 진단하고, 인천 주거지 재생사업에의 보다 효과적인 연계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국토교통부(2018),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지원신청 가이드라인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더불어마을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준비과정인 희망지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2018년 추진, 완료된 8개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이 지역은 2018년 희망지사업이 종료되어 성과보고서의 수집이 가능한 지역으로, 주민모임 구성 및 거버넌스 구축, 사업추진실태 및 과제, 지원센터의 역할, 후속사업과의 연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사업대상, 지원내용, 추진절차 등 희망지사업의 제도적 특성을 문헌조사(공모지침 등)를 통해 살펴보았다. 희망지사업이 완료된 8개 지역에 대해 공모제안서, 성과보고서, 사업계획서를 수집, 분석하여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시 및 군·군 담당 공무원, 주민모임 대표, 지원단체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재생법)」이 제정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주민역량강화,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시행 전 추진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인천 희망지사업은 2018년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으며 인천 더불어마을사업의 전신인 저층주거지관리사업에 관한 연구 및 인천 희망지사업과 유사한 서울시 희망지사업에 관한 연구가 다수 있다.

인천시 자체 추진 재생사업인 저층주거지관리사업에 관해 연구한 이왕기 외(2014)의 연구에서는 시설사업 위주로 단기간 추진된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전 역량강화의 중요성과 사업 완료이후 운영 활성화까지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서울시 희망지사업 추진지역을 대상으로 활동내용을 분석한 김도형 외(2017)의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조직과 활동기반을 형성하는 예비 과정으로서 희망지사업이 필요하며, 향후 본 사업과의 연계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인천 희망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동구 쇠뿔마을에 관한 지수정 외(2019)의 연구에서는 행정주도 추진 방식 및 중장년층 중심으로 젊은 층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희망지사업 추진 이후 지속적으로 자력 재생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인천 희망지사업의 현장거점 운영, 활동가 파견, 주민모임 구성 등 사업내용 및 예산배분, 사업비 집행 등 실제 추진과정상의 특성을 분석하고, 사업참여주체별 관점을 파악하기 위해 참여주민, 지원단체,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 인터뷰를 각기 진행하여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높였다. 기존 연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사전 준비단계로서 희망지사업의 추진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표 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저자	연구명	주요연구내용
이왕기 (2014)	인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운용 특성과 과제	- 인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실태 조사, 사업특성 및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 모색 - 타 지자체 사례와 인천 비교, 제도적 지원방안 - 시설사업 위주, 단기간 추진 등 한계, 사전역량강화 및 사업완료 후 운영까지 선순환 구조 구축 필요
김도형 외 (2017)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역량 강화사업에 대한 고찰 -서울시 희망지사업을 중심으로	- 2016년 서울시 희망지사업 19곳을 대상 분석 - 대상지 성격, 주요활동내용 분석 - 도시재생사업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역량강화, 활동기반 형성과정 필요, 사업과 연계하여 모니터링 필요
지수정 외 (2019)	주민이 만드는 금창동 쇠뿔마을재생 사례연구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일환으로	- 인천 동구 희망지사업(쇠뿔마을) 1개소 대상 연구 - 사업대상지 현황, 문제점, 사업추진과정 모니터링을 통한 한계점 고찰 - 행정주도 관습, 중장년층 중심 공동체의 문제점 지적
본연구의 차별성		- 인천시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 - 희망지사업 추진과정 상 사업내용, 예산배분, 사업비 집행, 실행경과 등 상세 분석 - 참여주민, 지원단체,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 인터뷰 조사를 통한 참여주체별 의견 수렴

## II. 인천 희망지사업 관련 제도 특성

### 1. 사업개요

#### 1) 배경 및 필요성

인천시는 정비구역의 해제가 가속화 되<sup>2)</sup>, 2015년 정비사업 해제지역의 출구전략으로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사업명칭을 ‘더불어마을 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전단계인 ‘희망지사업’을 함께 신설하였다. 더불어마을사업은 정비구역 해제지역 또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를 대상으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공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을 선정, 추진되었으나, 지역주민의 사업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 형성이 미약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는 지역이 다수 발생하게 되자, 주거지 재생에 대한 준비과정을 거쳐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희망지사업’을 사전에 지원하기로 한다.

희망지사업은 인천형 주거지재생사업인 ‘더불어마을 사업’의 준비성격의 사업이며, 주거지재생에 대한 주민조직 형성 및 역량강화, 마을의제 발굴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2018년 4월 기준, 인천시 212개 정비구역 중 95개 구역이 해제됨



그림 1. 더불어마을·희망지사업 추진 개념도

2) 지원내용 및 추진절차

희망지사업은 지역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과 지원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해당 군·구에 제출하게 되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군·구는 이를 시에 제출하고, 시는 현장심사와 서류심사를 통해 주민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장 모니터링의 3가지 항목으로 평가하여 선정된다. 희망지사업의 보조금은 제안자인 주민 및 지원단체에 직접 지원된다.

표 2. 희망지사업과 더불어마을사업 지원사항

구 분	희망지사업	더불어마을사업
지원금액	1년간 개소당 1.2억원(전액 시비)	3년간 개소당 40억원 이내(시:구 9:1)
지원내용	(필수)현장거점공간 운영, 주민제안공모사업, 마을조사 및 의제발굴, 전문가 현장파견, 마을 특화사업,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회의(선택)홍보, 마을행사, 소규모 환경개선	- 주민역량강화, 정비계획수립 -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 소규모주택정비 - 스마트시티, 그린리모델링 등

희망지사업은 주거지 재생에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주민모임에 대하여 역량강화 및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주거지 재생 또는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강화 분야의 전문지식과 인적기반을 보유한 지원단체를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에 한하여 다음연도의 더불어마을 사업으로 연계, 발전되는 구조를 가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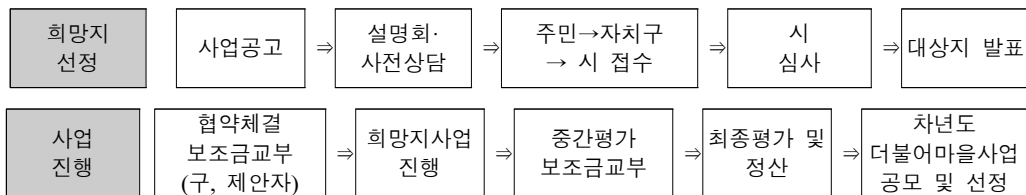


그림 2. 희망지사업 추진절차

## 2. 사업내용

희망지사업은 현장거점 운영, 활동가 파견, 주민모임 구성 및 운영, 주민역량 강화 및 공감대형성, 마을조사 및 의제발굴,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6개 사업을 필수 사업으로 하고, 이밖에 홍보활동, 마을행사, 소규모 환경개선 등은 선택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사업내용은 [표3]과 같다.

표 3. 희망지사업 세부 사업내용

구분		설명	조건/자격/역할	
필수사업	1	현장거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거점: 주민공동체 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일상적인 모임과 회의를 하고 다양한 활동을 실행하는 공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증금 없이 단기임차가 가능하며 접근성이 좋은 위치</li> <li>냉난방시설, 사무시설, 주방시설 설치 필수</li> </ul>
	2	활동가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가는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현장거점에서 상근(반상근)하며 주민공동체 활동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역량강화 활동, 지역재생활동,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관련 경험자</li> <li>도시재생사업, 희망지사업 관련 교육 이수자</li> </ul>
	3	주민모임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희망지사업 신청주체이자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주민협의체 형성의 주축이 되는 모임</li> <li>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운영</li> <li>주민모임의 가치관과 목표 공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지 내 다양한 주민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li> <li>사업단계별로 주민모임의 역할 변화 필요</li> </ul>
	4	주민역량 강화 및 공감대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시작</li> <li>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li> <li>주민모임 역할 및 공동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li> <li>지역 현황에 대한 이해와 공유</li> </ul>
	5	마을조사 및 의제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구체화하여 추후 도시재생사업에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전문가가 함께 지역조사 주체가 되어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로 활용</li> <li>조사방법: 설문지, 인터뷰, 워크숍 등</li> </ul>
	6	주민제안 공모사업 (마을특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안하고 직접 운영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공동체 활동 경험을 축적하도록 함</li> <li>희망지 사업 속 또 하나의 작은 사업</li> <li>마을특화사업: 마을조사 및 의제발굴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 및 보도정비, 쌈지공원 조성 등 실질적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청소년모임, 청년가구, 어르신, 학부모, 공동육아 등)</li> <li>지역자원연계사업(물리적 환경에 대한 관심 향상, 커뮤니티 거점 공간 활용 등)</li> <li>의제발굴 해결사업(마을조사/의제발굴에서 찾아낸 이슈 중 실행, 물리적 환경개선, 마을축제 등)</li> </ul>
선택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홈페이지, 소식지 등 오프라인 홍보</li> <li>소규모 축제, 플라마켓 등 마을행사</li> <li>아울터밭, 주민사랑방 등 소규모 환경개선</li> <li>기타</li> </ul>		

자료: 2018 인천 희망지사업 공고문 참조하여 저자 직접 작성

희망지사업의 사업비는 항목별로 한도액을 두어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경우, 건당 100만원 이내의 소규모 프로그램으로 여러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마을특화사업(H/W사업)을 3,000만원 이내에서 추진가능하다. 지원항목은 활동비, 사업운영비, 시설비로 항목별로 집행가능한 내역을 규정하고 있다.

표 4. 희망지사업 사업비 집행 한도액

구분	전체 상한액	세부 한도
현장거점임대/운영	1,800만원	공사비 500만원, 임차료 월 100만원
상근/반상근 활동가 수당	3,800만원	1인 월 250만원
주민모임구성/운영	400만원	-
홍보, 교육, 강사비 등	3,000만원	-
주민제안공모사업(마을특화사업)	3,000만원	건당 100만원(마을특화사업은 3,000만원 이내 가능)

표 5. 희망지 사업 사업비 지원 세부사항

구분	내용	
세부 지원항목	활동비	- 상근활동가 활동비/ 전문가 인건비/ 단순 활동비
	사업운영비	- 회의참석 및 자문비, 강사비, 원고비(인건비성 경비) - 공간 임차료, 공과금, 비품 임차료, 식비, 다과비, 물품구입비, 숙박비, 홍보인쇄비, 주민제안공모사업 운영비 등
	시설비	- 시설공사비/ 물품취득비

### 3. 국토부 소규모재생사업과의 비교

국토부는 2018년 4월 ‘도시재생 뉴딜지원사업 가이드라인’ 을 통해 지역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주민공동체 주도의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 지원사업’ 을 신설하고 국가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명처럼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전 사전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 중 H/W 사업중심 지원사업인 ‘소규모 재생사업’ 이 있다.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인천 더불어마을사업의 준비단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희망지사업과 소규모 재생사업의 유사점이 있으며, 두 사업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 [표6]과 같다.

표 6. 국토부 소규모 재생사업과 인천시 희망지사업 비교

구분	국토부 소규모 재생사업	인천시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지원대상	쇠퇴오건 총족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지원규모	개소당 5천~2억원(국비:시비 5:5)	개소당 1.2억원(전액 시비)
지원항목	인건비, 임차료 지원불가	인건비, 임차료 지원가능
사업내용	SW/HW사업 연계 권장	SW사업 위주(H/W사업 일부)
주체별역할	기초지자체 역할 강조 지원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기초지자체 역할 미약 지원단체 참여 의무화
평가/선정	전국단위 선정, 비교적 엄격한 평가	사업계획 제출지역 대부분 선정
사후관리	사후관리 및 사업 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계획없음
타사업과의 연계성	행안부 협력형 추진	계획없음

### Ⅲ. 인천 희망지사업 추진실태 분석

#### 1. 분석의 틀

##### 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8년 희망지사업 8개소<sup>3)</sup>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표 7. 2018년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대상지

연번	군구명	사업명	면적(㎡)	주민모임명	지원단체명
1	중구	전동구역	38,500	어울림 웃터골	(사)인천여성도시환경연구원
2	동구	송현시장주변	31,700	동구사랑 송현사랑	우리청년사업단
3	동구	우각로 쇠뿔고개	31,700	쇠뿔마을주민모임	우각로사람들
4	미추홀구	도화역 북측구역	98,000	에그리나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마농탄토
5	부평구	부평아울렛 남측	60,374	맑은내주민모임	여럿이함께하는 동네아놀자 등
6	계양구	효성1	97,000	새별마을	다섯손가락 사회적협동조합
7	서구	가좌3구역	71,438	가좌마을기획단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마농탄토
8	강화군	온수지역	317,900	온수마을	온수권역 재창조사업추진위원회

##### 2) 조사방법

희망지사업의 추진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공모지침에 따라 작성된 사업제안서를 통해 지역특성 및 사업계획을 파악하고, 사업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세부 사업내용의 특징을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희망지사업의 추진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과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8년 10월 25일~11월 15일에 걸쳐 인터뷰 조사를 병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인천시 주거재생과, 군구 담당자, MP, 지원단체<sup>4)</sup> 구성원, 주민조직(대표)으로 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은 크게 추진주체상의 문제, 사업추진상의 문제, 추진절차상의 문제, 후속사업과의 연계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3) 2018년 희망지사업은 9개소가 선정되었으나, 계양구 효성2구역이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반려하여 최종 8개 사업이 완료되었음

4) 지원단체는 건축사, 마을활동가, 청년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등이 포함됨



## 2. 세부 사업특성 분석

### 1) 지역특성 및 사업계획

사업대상지 모두 희망지사업 공모성격에 맞게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주택 및 기반시설 노후, 주차난, 방범 및 안전문제 등 공통적인 현안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개 구역은 정비구역 해제지역으로 정비사업의 대안사업으로서 희망지사업을 통해 주민공동체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주민특성과 활용가능한 마을자산을 고려하여 마을의체를 발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H/W, S/W사업을 다양한 사업계획안이 제안되었다.

표 8. 희망지사업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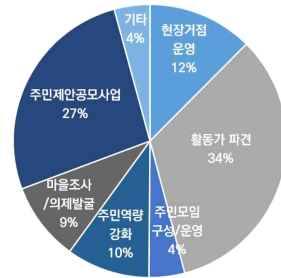
연번	군구명	구역명	정비구역 해제여부	사업비 (천원)	주민모임 규모(명)		사업계획안
					운영진	일반주민	
1	중구	전동구역 (전동웃터골)	○	90,550	15	30	- 세대간 융합 프로그램 -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동아리 방, 어르신 모임공간 조성 - 골목길 정비, 가로전시장
2	동구	송현 시장주변	×	113,625	4	15	- 시장상인 및 주민 건강관리프로그램 - 재래시장 경제활성화교육 - 마을교과서 발간, 역사/문화조사
3	동구	우각로 쇠뿔고개 (쇠뿔마을)	○	113,728	2	19	- 골목생활장터, 마을텃밭모임, 마을벽 화지도 및 팸플릿 제작 - 배다리 굿즈 디자인 및 제작
4	미추 홀구	도화역 복측구역 (행복한 도화마을)	○	108,709	7	26	- 대화초 학부모 모임을 중심으로 지 역문제 해결사업(도로 통행 안전문 제, 교육인프라 시설)
5	부평 구	부평아울렛 남측 (부평맑은내)	○	114,312	6	34	- 보물창고 운영(스포츠용품, 캠핑용 품, 가전, 장난감 등 공유) - 집수리용품 대여 및 수리센터 운영 - 주민사랑방 소규모 환경개선
6	계양 구	효성1	×	74,035	7	22	- 마을커뮤니티센터 구축, 운영 - 빛을 테마로 한 안전한 마을 조성 (LED전등, 미디어아트작품 등 도입)
7	서구	가좌3구역 (견고실은마을 골목길만들기)	○	109,472	6	18	- 기존 마을 활동 발전(초록장터 등) - 주민 제안사업 발굴 및 실천 - 마을 조사 및 계획 수립
8	강화 군	온수지역	×	100,235	15	54	- 주민 문화센터/주민센터 운영 - 마을조사 및 특화사업 발굴 - 소규모 축제, 마을텃밭 운영

2) 예산

총 사업 예산 한도액은 1억 2천만원 이내로, 각 사업지별로 7,400-1억1,400만원 수준으로 계획하였다. 사업지별로 세부항목별 예산 배분은 차이가 있으나, 전체 8개 사업예산 총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활동가 인건비가 3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27.3%, 현장거점 운영이 12.8%로 그 다음으로 높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표 9. 희망지사업 세부항목별 예산배분

사업내용 세부항목	8개사업 총예산(천원)	비율(%)
현장거점 운영	105,904	12.8
활동가 파견	284,702	34.5
주민모임 구성 및 운영	35,910	4.4
주민역량강화 및 공감대형성	83,928	10.2
마을조사 및 의제발굴	79,213	9.6
주민제안 공모사업	225,230	27.3
기타	35,919	4.4
합 계	824,666	100%



3) 현장거점 조성 및 활동가 파견

모든 대상지에서 사무실, 회의실, 각종 행사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장거점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모임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차별화된 지원책이라 할 수 있다. 대체로 단독주택 1층을 활용한 전동구역에 제외한 나머지 대상지는 기존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자리잡고 있으며, 리모델링 후 사용하고 있다<sup>5)</sup>.

임차료는 월 33-80만원 수준<sup>6)</sup>이며, 규모는 대부분 약 20평 내외로, 지원단체에서 파견된 상근/비상근 활동가가 사용하는 사무공간과 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함께 조성되어 있었다.

활동가 파견은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대상지에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대부분 지원단체에서 상근 또는 비상근의 형태로 1-3명 정도 규모로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sup>7)</sup>. 활동가는 건축가, 작가, 복지사업 관련자 등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거나, 공동체 활동의 경험을 가진 마을활동가가 참여하고 있었다.

희망지사업은 대부분 대상지에서 주민모임 활동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5) 서구 가좌3구역의 경우, 대상지 내 위치한 기존 지원단체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  
 6) 사업비 편성 지침 상 보증금 없이 월 100만원 이내로 하도록 정해져 있음  
 7) 중구 전동 반상근 3명, 미추홀구 도화역 북측구역은 상근 1인, 반상근 5인, 서구 가좌3구역은 상근 2인, 반상근 5인으로 가장 많은 활동가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지원단체에서 파견 직원 1-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표 및 소모임 대표를 활동가로 정하고 있음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거점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체 활동의 전문성을 가진 활동가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 직접 투입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주민공동체 활동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국토부 소규모 재생사업과는 차별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 희망지사업 현장거점공간 활용사례

출처: 인천광역시(2018), 2018년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최종평가 자료(2018.12.11)

#### 4) 주민모임 구성 및 운영

주민모임은 지원단체를 중심으로 희망지사업에 대한 설명회, 주민모임 구성을 위한 사전 기획회의를 통해 희망지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새롭게 구성한 것이 대부분이다. 주민모임은 대표 및 소모임 대표로 구성된 운영진과 개별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일반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진 인원은 1~15명으로 편차가 크며 평균 7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모임 구성원의 연령층을 살펴보면 40~50대가 56.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60대 이상이 30.2%, 30대 이하가 13.2%를 차지하여 평균 연령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모임의 운영은 대표회의 및 전체회의를 통해 각종 활동 및 사업내용에 대해 결정하고, 주민모임 별로 주민공모사업 등 세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었는데, 대표회의는 평균적으로 월 2~4회, 주민모임은 월 1~7회 정도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 5) 주민역량강화 및 마을의제 발굴

주민역량강화 및 공감대형성은 희망지사업 및 도시재생에 대한 설명회와 교육, 답사 등을 통한 참여주민들의 역량강화와 소식지발행, 온라인 홍보 등 비참여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끄는 홍보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내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희망지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방향 등 소식을 담은 소식지와 유인물을 정기적으로 제작하여 홍보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마을조사 및 의제발굴은 설문조사 및 주민인터뷰, 마을탐방, 워크숍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지역자원을 발굴하거나, 마을진단지도 작성을 통해 마을의제를 발굴하여 마을계획을 수립해 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었다. 서구 가좌3동의 경우, 사전준비→마을만들기의 이해→마을의제 찾기→주민수다 파티→마을계획 수립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이러한 주민역량강화 및 마을의제 발굴과정의 성과는 일반 주민은 사업신청 당시 평균 10명 내외였으나 사업 진행과정에서 15~72명으로 점차 증가하여 평균적으로 32명 정도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는 등 주민역량 강화 및 공감대 형성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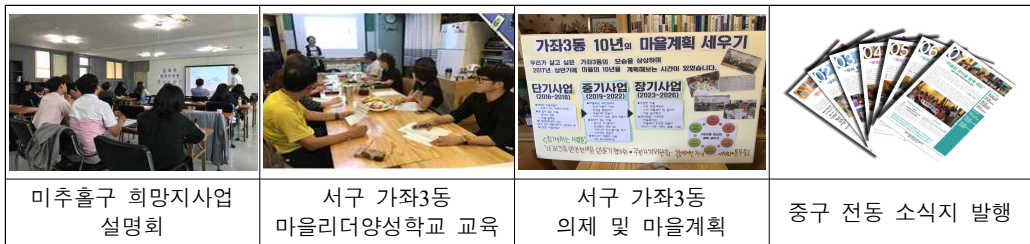


그림 4. 주민역량강화 및 마을의제 발굴 운영 사례

출처: 인천광역시(2018), 2018년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최종평가 자료(2018.12.11.)

#### 6) 주민제안공모사업

주민제안공모사업은 희망지 사업 속의 또 하나의 작은 사업으로 주민 스스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마을환경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설사업(H/W)을 추진할 것을 권장하였으나, 예산 및 사업기간의 한계로 대부분 S/W사업 위주로 추진되었다.

전반적으로 주민모임이 쉽게 관심을 가져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노래, 요리, 미술, 사진, 독서교실 등 개인 취미활동이 가장 많았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축제, 건강관리, 쓰레기 처리 등 마을차원의 활성화 및 현안해결에 대한 활동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H/W사업으로는 텃밭, 쉼터, 화단 조성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사업 위주로 추진되었다.

표 10. 희망지사업 주민제안공모사업 세부내용(2018.4~8월)

no.	구역명	건수	세부내용	세부내용 분류				
				S/W			H/W	
				육아 경로	문화/ 취미	주민 교류	환경 개선	녹화 텃밭
1	중구 전동구역	9건	- 간이쉼터, 그늘막, 포켓공원, 미관담장, 소화기 - 노래교실, 요리교실, 조경사업, 소품만들기		○		○	○
2	동구 송현시장주변	10건	- 주민/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 재래시장 경제 활성화교육		○	○		
3	동구 우각로 쇠뿔고개	2건	- 마을공동텃밭모임(텃밭, 화단, 쉼터 조성) - 통통모임(도자기 소식통꽃이 제작,배치)		○	○		○
4	미추홀구 도화역 북측구역	5건	- 퍼포먼스 미술놀이/ 줌바댄스/꼬마발명단 - 12달 자연놀이/ 동화구연 스토리텔링	○	○	○		
5	부평구 부평아울렛 남측	8건	- 한뼘텃밭만들기/ 마을단오제/ 어르신쉼터 - 무장애 인도 만들기, 마을밴드/사진교실/우체 통부착사업, 시와영화/복달임행사	○	○	○	○	○
6	계양구 효성1	10건	- 소독, 방법, 쓰레기 관리, 마을쉼터				○	
7	서구 가좌3구역	6건	- 내 인생이야기가 바로 책, 시, 너는 누구니 - 마을에서 악기 하나 배워보자(초급/중급)		○	○		
8	강화군 은수지역	10건	- 공원조성/웃만들기체험방/마을음악회/소청염 색/자수공예/공유부엌/화훼류식재/ 최영섭거리 꽃길조성/ 꽃차만들기체험방/ 캘리그래피		○	○	○	○

### 3. 추진과정에서의 과제에 대한 인터뷰 조사 결과

#### 1) 희망지사업 공모 전 충분한 이해과정 필요

지원단체 및 군·구 담당자는 희망지사업에서는 당초 지역이 가지고 있는 주민의 참여의지 및 역량에 따라 사업제안서 작성이나 사업추진과정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민조직에 의한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대상지의 경우, 사실상 지원단체가 주도하여 제안서를 작성,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민은 수동적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sup>8)</sup>.

8) 이와 반대로 서구 가좌3동, 동구 우각로, 부평구 부평아울렛 남측 대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원단체의 공통적인 의견은 “이 지역은 이미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주민공동체에 의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사전에 희망지사업에 대비하여 주민모임을 쉽게 구성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의제 및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주민들이 충분히 공유하고 있어 1개월 이라는 짧은 공모 기간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선정이후에도 주민모임을 중심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라고 하고 있다. 서구 가좌3동은 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2007), 동구 우각로는 우각로사람들(2011), 부평구 부평아울렛남측은 여럿이 함께하는

이에 대해 지원단체로 참여중인 민간단체의 팀장은 “인천시가 1개월의 단기간에 급작스럽게 사업공모가 진행되어 뒤늦게 지원단체가 들어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희망지사업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하고, 주민모임을 구성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기 어려워 지원단체가 주도적으로 작성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어렵게 선정되었지만, 여전히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었다” 라고 희망지사업의 공모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시는 희망지사업과 같이 주민주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공모 전에 군·구 담당부서 및 주민들에게 사전설명회 및 언론 등 홍보를 통하여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우선적으로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경직적인 예산편성 기준의 조정

군·구 담당자, 지원단체, 주민모임 대표는 공통적으로 희망지사업 추진시 세부 사업항목별로 한도액이 설정되어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곤란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부평구 맑은내 마을 주민모임 대표는 “우리 대상지는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경직적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사업을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따라서 사업성격 및 내용에 따라 필요예산이 달라져야 한다.” 라고 지적하면서, 지역여건에 맞도록 지출항목별 상한액 기준을 최소화하고 유연하게 지원하도록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물론, 인천시 차원에서는 예산편성기준은 사업에 따른 공적재원의 무분별한 사용을 최소화하고, 구체적 지출규정을 제시하여 사업비 집행에 대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틀 안에서 유연하게 집행가능하도록 세부 규정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희망지사업에서 다양한 사업추진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주민제안공모사업의 집행한도액(건당 100만원, 전체 3,000만원 상한)을 조정 또는 상향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 H/W 사업의 추진상 한계 발생

희망지사업에서는 주민제안공모사업시 마을특화사업이라는 소규모 단위 H/W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군·구 담당자 및 지원단체는 지역 내 H/W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대상지(국공유지)를 현실적으로 찾기 어려울 뿐더러 사유지의 경우,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주민간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기간이 짧아 행정절차를 수반한 H/W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동네야 놀자(2001)라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지역내 존재하고 있으며, 희망지사업의 지원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한계가 발생하였는데, 미추홀구 구역의 지원단체는 마을특화사업으로 학교주변의 보도정비사업을 계획하였으나, 도로과와의 협의, 교육청 예산심의 절차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6개월 내 추진은 사실상 불가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들이 H/W사업을 직접 경험해 본다는 추진의도는 긍정적이나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H/W 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부지 확보 및 활용방안(공유지 활용 등) 등의 협의 절차를 미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4) 지역에 기반을 둔 마을활동가의 양성 필요

대다수 주민이 도시재생이나 공동체 활동에 참여경험이 없기 때문에 주민모임 구성, 역량강화 교육, 지역의제 발굴, 거버넌스 구축, 주민제안사업 등을 지원하는 지원단체의 역할은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우,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발굴, 추진하기보다는 지원단체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담당자는 *“주민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 지원단체가 지원적 성격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 추진주체가 됨으로써 사실상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라고 희망지사업의 한계를 들고 있다.

이에 희망지사업이 더불어마을사업으로 연계,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원단체는 사업기간에 한해 활동하기 때문에 사업 이후 주민모임 중심의 지속적 활동이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원단체는 주도적 사업추진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기반을 둔 마을리더 또는 마을활동가를 양성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희망지사업의 경험을 축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5) 추진주체간 소통구조 및 부서간 협업체계 필요

희망지사업과 같이 주민주도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추진주체간 소통구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특히, 군·구 담당자는 *“인천시가 사업공모 이전에 사업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이 부족하였으며, 주도적으로 추진방향을 군·구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하지 못하고 사업을 신청할 수 밖에 없었다.”* 는 점을 문제로 들고 있다. 또한, 공모 당시에 희망지사업을 담당할 부서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군·구와는 달리 담당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군·구에서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하기 곤란하였다는 것이다.

계양구 효성2구역 희망지사업의 경우, 희망지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희망지사업이 불투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희망지사업 담당부

서가 달라 이에 대한 사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으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시키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희망지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또는 더불어마을 사업과의 연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준비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후속사업의 담당부서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형성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6) 후속사업에의 연계에 대한 불확실성

인천시는 희망지사업 총 8개소 중 최종평가를 거쳐 4-5개 사업을 40억 규모의 더불어마을사업과 연계하거나 일부 대상지는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상지에서는 희망지사업 자체의 효과적인 성과보다는 추후 더불어마을 사업이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단체 역시 사업지원이 종료되면, 운영중인 현장거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상근 활동가가 계속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에 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후속사업의 선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시 담당부서는 *“희망지사업은 적극적인 주민공동체 활동의 성과를 토대로 후속사업으로의 연계를 통해 지속성을 보장받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민 또는 지원단체는 희망지사업 자체의 성과를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보다 좋은 성과가 있는 대상지가 타 지역과의 경쟁속에서 후속사업으로 연계, 발전되는 구조가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라고 하고 있다.

주민모임 및 지원단체 측면에서는 후속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제약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후속사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 희망지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사업으로 연계, 발전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IV. 결론

인천시는 전면철거형 정비사업이 장기화되면서 해제지역이 확대되게 되자, 노후 주거지의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차원의 방식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증대되면서 인천형 주거지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저층주거지관리사업(현 더불어마을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은 지역주민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매우 중요하나,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선정, 추진됨에 따라 사업방향이 자주 바뀌거나 주민반대에 의해



사업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있는 지역이 다수 발생되었다. 이에 인천시는 보다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의 역량강화나 주민조직 구성 등 사전에 사업추진기반을 구축하는 희망지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희망지사업의 추진실태 분석결과, 첫째, 희망지사업의 현장거점 운영 및 지원단체(활동가)의 직접적 투입이라는 차별적 지원은 정기적인 주민모임 개최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재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켰다.

둘째, 희망지사업은 주민들이 평소 막연하게 생각했던 지역의 문제점과 잠재력을 마을조사 및 의제발굴 과정을 거치면서 비전을 공유할 수 있었으며,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직접 실행해 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더불어마을사업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셋째, 희망지사업은 짧은 공모기간, 경직적인 예산집행기준, 지원단체 주도의 사업추진 등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넷째, 희망지사업은 S/W사업과 H/W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대부분 지역에서 S/W사업 보다는 H/W사업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노출되었다. 주민모임 및 지역특성에 맞게 사업을 유연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희망지사업은 지원단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단체 활동 종료 이후의 지속적 마을재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지원단체는 “지역의 구성원으로 마을리더 또는 마을활동가 양성” 하도록 관련 규정을 공모지침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천에서는 더불어마을사업이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주민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경험이 부족한 상태로 선정, 추진됨에 따라 사업내용이 자주 변경되거나 주민간 갈등이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업추진 이전에 주민 스스로 만든 마을계획을 토대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경험해 보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될 갈등을 조정하는 협의구조를 구성하는 등 사전준비단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최근 들어 인천 희망지사업 대상지는 국토부 소규모 재생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연계, 발전되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희망지사업과 같은 사전준비성격의 사업은 보다 효과적인 더불어마을사업이나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해 그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이에 인천시는 희망지사업 실태분석 결과를 토대로 희망지사업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보다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인용문헌

- 국토교통부, 2018, “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2018,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 김도형, 이동훈, 2017.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역량 강화사업에 대한 고찰-서울시 희망지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17(2): 92-93.
- 서울특별시, 2017. “서울시 희망지사업 길라잡이”, 서울특별시.
- 이왕기, 2014. “인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운용 특성 및 과제, 인천연구원.
- 인천광역시, 2018,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더불어마을 지원계획”,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과 내부자료.
- 인천광역시, 2018. “2018년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최종평가 자료(2018.12.11)”,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과 내부자료.
- 장남중, 2015, “서울시 주거재생 지원모델의 실행 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 조상운, 2018. “인천 소규모재생사업 추진 및 연계활용 방안”, 인천연구원.
- 지수정, 박진호, 정세정, 2019, “주민이 만드는 금창동 쇠뿔마을재생 사례연구-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일환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39(1): 278-281.
- LH 도시재생기획단, 2018,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지원신청 가이드라인

< 투고 2020.05.11., 심사 2020.05.28., 게재확정 2020.08.06. >